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으로 문안 드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찌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고전 16:22)

2 년째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해를 돌아 볼 때 주신 말씀으로 바울 사도께서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찌어다 선포하셨는데 정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삶 자체가 벌써 저주 아래 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며 얼마나 어려웠을지 이해하면서도 삶이-생명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기존의 신뢰 배려의 관계들이 다 망가지고 사랑이 사라져 버린 관계 그러나 그것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가 정말 고통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저주 받은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비롯한 크 ㄹ ㅅ 찬이라고 이름하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중심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삶이 고통의 삶이고 저주 받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딤후 3:1~5 말씀을 그대로 임을 인정합니다. 올 해는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이 풍성한 관계가 되고 쉽지 않겠지만 사역지 현장에서 대면한 모든 관계에서 협력과 동역하는 모든 곳에 사랑이 흘러 넘쳐나는 관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일은 몰아쳐 온다는 말이 있듯이 지난 해는 관계된 많은 것들이 곤고한 상태에 빠져들더니 예상치 못했던 비자가 거부되고 약 4 개월 정도 비자가 없어 이동도 못하고 일을 중단하고 숨죽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최근 한국 회사의 상사 주재원 자격으로 1 년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관계된 일들을 추스리고 정리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전궁 각 도시에 흩어져 있는 ㅅ학생들이 주어진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학사관리, 정해진 강의, 필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동역하던 분들이 경제적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철수하여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채워지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손 모아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저와 아내 둘 다 코로나로 사경을 헤매이다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 덤으로 얻은 인생이라 감사해야 하지만 해마다 수술을 받게되는 아내의 건강상태를 생각하면 한없이 나약해 집니다. 자궁 내막암 증상으로 두 번의 조직검사와 제거 수술을 받은 아내는 전이된 곳은 없는지 수술 후 치료가 되었는지 곧 다시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넘어져 갈비뼈 골절 발가락 골절 또 다른 발 골절등 육신이 약해진 아내를 보면서 쉬어야 하는데 .... 그래도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심에 감사와 순종으로 섬김을 다 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에게는 끝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이 어둠 속에 생활입니다. 집시 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다가가 그분의 따뜻함으로 위호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동역하던 현지 자매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난 후에 리더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리더 또는 동역자가 세워져 소망없는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름부음 입은 귀한 인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손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 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사 49:10) 이 말씀이 이 땅에 이 민족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A- M

제임스 올림